■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인생의 4계절(3)

〈지난호에 이어서〉

인생의 겨울: 노년기를 말한다. 과거에는 환갑이나 정년퇴임을 노년기라고 했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된 오늘날에는 80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체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예컨데 일본에서는 65세에서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로,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라는 단어가 법정용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원래 '로'자가 경의를 표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고령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생의 겨울인 노년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절이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찌하면 훌륭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년 후에 새로운 출발을 한 인사들이 수없이 많다. 정년퇴임을 창조적 은퇴(creative retirement)라고 하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80세가 되어서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뇌세포가 20%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창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며, 실제로 이를 증명한 사람들은 허다하게 있다.

노후에는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경험하고 있고 학문적이나 과학적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노후에도 시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오히려 시간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나이가 들으면 건망증이 생기고 신체의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는 의사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정신적으로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노인들은 성숙하면서도 순수해지고 세상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한다. 취미생활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1533. 2-1592. 9)는 "책을 읽는 것은 멋있게 죽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멋있게 죽는다는 것은 말년을 멋있게 산다는 뜻이다. 독서라는 것은 선인들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전수받는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외에 선인들과도 교류한다는 것을 뜻한다. 독서도 물론 젊을 때부터의 습관이다. 독서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시력이 떨어져서 독서가 불가능한 사람도 많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 분야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력의 경우도 그렇다. 우리들은 노인성 장애 때문에 비관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된다.

바람직한 노인상은 누구나가 꿈꾸는 일이다.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Robert Louis Balfour Stevenson: 1850. 11-1894. 12)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참다운 지혜는 항상 계절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에 알맞은 변화를 하는 일이다. 어릴때에는 완구를 사랑하고, 청춘 시절에는 모험적인 정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때가 오면 미소 짓는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예술이다." 완고하고 고집이 센 노인이 아니라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노인이야말로 바람직스러운 노인인 것이다. 늙어서도 마음이 건강하면 죽을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미소 짓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자연의 4계절이 매년 되풀이되는 반면에 인생의 4계절은 단 한번 뿐이라는 사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지만, 근래에는 자연의 4계절 중 봄과 가을이 아주 짧거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겨울이 지나면 곧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 〈끝〉

어느 팔순(八旬) 늙은이의 넋두리

▣ 권용식 (강릉종친회 고문)

1. 이제 팔십이다. 팔순(八旬)의 의미(意味)는?

올해로 내 나이 팔십을 맞이하니 생각하는 바가 많아진다. 젊은 시절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늙어 갈수록 지나온 시간이 아쉽고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의 허무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지난 시간의 소중함이 뼛속깊이 사무치기도 한다.

팔순이란 세월은 달로 치면 960달이요, 날자로는 29,200여일이나 된다.

이 긴 세월 살아오면서 한 달에 쌀 한 말씩만 먹었어도 100여 가마요, 하루 소주 한 병씩만 마셨어도 30,000여병이나 되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빚을 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무언가 마무리 못한 조급함에 마음이 개운치가 못하다.

팔순을 다른 말로 우산 산(傘)자를 써서 산수(傘壽)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우산 산자(傘字)가 여덟 팔(八)과 열십(十)자로만 조합된 글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듯하나, 내 나름대로는 산수(傘壽)의 의미를 부여하면 나이 팔십이면 이제부터는 자식들 그늘 아래서, 또 사회복지의 큰 우산 속에서 여생을 즐기면서 산수(山水) 즉, 산과 물을 벗 삼아 자연을 닮아가라는 뜻이라 생각해 본다.

2. 다음은 미수(米壽)다. 팔팔한 미수(米壽)를 맞으려면...

어쩌다 보니 팔십을 넘겼다. 기대 이상의 삶이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다. 그 동안은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어느 재벌총수(財閥總帥)처럼 부(富)를 축적하기는 애시당초 틀린 일이고, 고관대작(高官大爵)의 부푼 꿈도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다.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작지만 남의 윗자리에서 일해 본 영광도 누렸고, 가까운 친구들과의 계(契)모임에서는 계수(契首)노릇도 해 보았고, 동창회에서는 총무로, 회장으로 봉사도 하였으며, 집안일에도 앞장 서 어른대접도 받고 있으니 결코 허송세월(虛送歲月)은 아니었다고 자위(自慰)해 본다. 또 슬하를 벗어난 자식들이 제 앞 가름하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고, 재롱떨던 손자녀(孫子女)들도 어엿한 미장부(美丈夫)로 커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

또 부부함께 지금까지 오손도손 해로(偕老)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나도 꽤나 복많은 늙은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살다보니 팔순(八旬)이 된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음은 88세 미수(米壽)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불과 3,000여일 남짓 남은 세월이지만 세상사(世上事) 번잡한 일에서 한걸음 물러나 좀 바보스럽게, 또 자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곧 88세 미수가 될 터이니 그때까지 만이라도 팔팔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갈망(渴望)해 본다.

3. 백수(白壽)를 넘어 천수(天壽)에 이르는 길은...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지만, 그래도 그 세월 속에서 무언가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것을 노욕(老慾)이라 말할지 모르나, 이제는 무엇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담금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 첫째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효자 자식을 두었더라도 부모건강을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남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은 내 몸 내가 건사할 줄 아는 것이다.

예로부터 "약보(藥補)는 식보(食補)보다 못하고, 식보(食補)는 행보(行補)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좋은 보약(補藥)과 보양식(補養食)도 적당한 운동보다는 못하다는 말일 것이다.

보다 많이 움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활력(活力)을 찾도록 애써보자.

다음은 번잡한 세상사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세대(現世代)의 가치기준(價値基準)은 우리의 견해(見解)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적어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세대차이(世代差異)는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나름대로 잘 굴러가니, 때로는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못 들은척하는 초연한 자세가 더 현명하고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온 것 같다.

80여년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닥여 준 이 세상 모든 고마운 것에 대하여 빚진 마음으로 얼마라도 보답하고 떠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모두 벗어놓고, 비우고, 홀가분하게 가야겠다는 나눔과 베품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99세 백수(白壽)를 넘어 천수(天壽)에 이르는 길은 결코 더 모으고, 채우고, 보태려는 길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고, 베푸는 길임을 명심(銘心)하였으면 한다.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원 문화탐방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회장 권계동)에서는 열친계원, 청장년회원, 부녀회원 등 42명이 2013년 5월 30일(금) 남부지역의 경주와 울산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제일 먼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용산서원 경내에 있는 정무공최진립장군상(貞武公崔震立將軍像)을 둘러보았다.

청백리정무공최선생기념관(淸白吏貞武公崔先生紀念館)의 유물전시관 안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해 놓았던 3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용산서원(龍山書院)은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8호로 지정되었다. 경주최씨가암파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무공(貞武公) 최진립(崔震立)선생을 추모(追慕)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울산대공원 앞 독도가자미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쉬었다가 울산대공원 으로 들어가서 입구의 꽃밭을 배경으로 단체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하고 자유로이 둘러보았다. 울산은 1960년 이후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로서 급속한 성장을 하는 동안 <도시 환경의 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한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이미지는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공해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열악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기 시작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정제(淸淨劑) 역할(役割)을 할 공원(公園)이 절실히 요구되어 울산대공원을 시설하였다고 한다.

△경주, 용산서원에 있는 '정무공 최진립 장군상' 앞에서 복야파종회, 열친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고래박물관은 2004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고 한다. 1986년 포경(捕鯨)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 가는 포경유물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해양생태계는 물론, 교육 연구를 위한 체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창조(創造)와 개척정신(開拓精神)으로 조선(造船)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로 성장하여 한국을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이 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여러 곳의 모든 관광(觀光)을 마치고 울산 간절곶으로 갔다. 간절곶은 한반도 지도에서 울산항과 기장의 대변항 사이에 살짝 튀어나온 지역이다. 간절곶에서 잠시 쉬웠다가 안동으로 돌아오는 문화탐방은 족의를 돈독히 하는 뜻이 깊은 하루가 되었다. 〈총무부장 권오익〉

■ 만화자서전

꿈을 이루어 회장이 된 장애소년

▣ 박경진 회장·권영섭 만화

만화는 그림과 이야기가 상호 상승 작용을 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적인 기능이있다.

한국만화가협회장을 역임하고 50여년간 만화 작품활동을 하고있는 만화가 권영섭 회장(본원 자문위원·한국원로만화가협회장)이 협회의 사업의 하나로 사회각계, 각층, 원로들의 삶의 일대기를 만화자서전으로 제작하여 젊은 후손들에게 만화를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외눈박이 장애자 현 진흥문화(주) 박경진 회장의 일대기.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215쪽으로, 지은이(작화) 권영섭, 발행인 박경진으로 지난 6월5일 '꿈을 이루어 회장이 된 장애소년(만화자서전)'이 도서출판 진흥으로 발간됐다.

만화의 주인공인 박경진(73)회장은 1940년 음력 4월에 충남서산에서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한쪽눈이 감겨진 외눈박이 애꾸로 태어나 장애자로 자랐다. 씨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다.

천운으로 나이 21세 되어서 여동생의 주선으로 이필웅 안과의원에서 이마 근육에 눈꺼플 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고 외눈 인생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박경진씨는 자라온 과정이 어린시절 내내 장애자의 열등감, 외로움 등에 시달리며 자학을 일삼았다. 학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을때 그러한 좌절감은 절정에 달했었다.

△박경진 회장, 권영섭(작화)로 만화자서전을 발간했으며(좌측), 우측은 권영섭 회장이 박경진 회장의 자서전을 만화로 그렸다.

이어 기독교에 입문해 믿음으로 정신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그 아픔은 고스란히 청년기로 이어졌다.

이어 결혼하고, 군대생활 3년 동안이나 서울에 올라와서 10여년동안 이사하기를 25번, 생계를 위해, 안해본 일이 없을만큼 다양한 일을 했다.

막노동, 건축현장잡부, 우물파기, 리어카행상, 문패 주문 등,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했다. 오직 먹고 살기위해 고군분투, 피나는 온갖고생을 겪기도 했다.

1979년 9월 서울 종로 3가 47번지에 "진흥문화사"란 회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진흥문화(주), 진흥팬시, 진흥천사닷컴, 진흥홀리투어, 외 5개 회사를 설립해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오늘날 한 장애인이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자립, 입신양명하게 된 것은 오직 감사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때 오직 그때만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교훈으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이에 이 만화를 보고 한국에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 크게 입신양명, 자수성가 하기를 바란다면 '만화자서전'을 읽어 봄직하다.

▲협회(031-215-5508)

▲010-3774-3953(권영섭 회장)

■ 역사기행

팔당호 남쪽에 솟은 국사봉 (國思峯)

▣ 향촌 권오창 (본원 자문위원)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 경계에 있는 국사봉은 해발 207.3m 저봉으로서 남한산성의 동쪽 42번 국도에서 8Km거리에 있다.

국사봉은 팔당호에 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해협산에 인접해 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1636년~1637년)때에 왕이 피난했지만 45일만에 항복한 곳이다. 이 시기에 추위와 식량부족으로 성내의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각처에서 창의한 원군은 도중에서 청군에게 모두 격파 당하였다.

남한산성과 거리가 멀지 않은 국사봉 밑 퇴촌지역 평야지대에는 쌀생산이 많아서 산성에 군량미를 제공하는 배후지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국사봉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는 전국에 여러곳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특히 조선왕조의 개국에 저항하여 고려의 벼슬아치들이 고려부흥을 염원하고 국사봉밑 은밀한 곳에 모여 산정에 올라 개성을 바라보며 망배하고 나랏일을 걱정하고 의논하였던 곳이라고 하여 국사봉이라고 전하고 있다.

산봉우리에서는 팔당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정상에 지어져 있는 사각정에서는 쉼터가 되며 정자밑에 있는 맑은 샘물은 해갈을 면하게 하여준다.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숲이 가꾸어져서 삼림욕장으로 지정되어있고 산밑에는 박정희대통령시대에 유실수로 심은 밤나무가 많아서 가을에는 밤을 주우러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 일대에는 팔당수원지라는 이유로 오염원을 단절시키고 4층이상 건물 증축을 제한하고 오수를 집중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자연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학습도장과 건강관리 산책통로 12Km를 만들어 놓아 팔당호의 철새 관찰과 잉어가 갈대숲 물위로 뛰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사봉에 전해내려오는 재미있는 전설이 한가지 있다.

국사봉중턱에 사만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사찰과 수도승이 4만여명이 있었다고 사만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절의 주지스님은 도를 통한 도승이였다고 하는데 어느날 달 밝은 여름밤에 절로 돌아오는 길에 국사봉밑의 계곡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계곡바위위에 옷을 벗어 놓고 숲속 계곡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도승이라도 여색에 대한 마음이 동하여 혼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 몇 개월이 지속되어서 주지승 혼자 이 장면을 훔쳐보다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어 이를 탈출하려고 그 여인의 옷을 벗어 놓았던 바위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일꾼들을 동원하여 지렛대로 그 바위를 계곡 아래로 굴려버렸다.

아차! 이 무슨 변고인가! 그 바위 밑에는 흡사 뱀과 같은 왕지네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엉겁결에 그 혐오스런 그 왕지네를 지렛대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내여 죽여버렸다. 그 지네는 꿈틀거리면서 계곡 물속으로 잠겨서 떠내려갔다. 그날 밤 그 주지스님은 꿈속에서 그 목욕하던 여인이 나타나서 울면서 호소하였다.

"저는 천상의 선녀인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천상에서 쫓겨나서 속죄의 벌을 받고 지상에서 100일간의 목욕을 마치면 다시 천상으로 승천할 수 있었는데 그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는 날이 바로 99일째가 되어 하루를 못 채우고 애석하게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주지스님은 크게 후회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은 모두 자기 본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라고 다시 후회하고 어디론가 바로 그길로 그 사만사를 떠나버렸다.

그 후 그 많던 수도승이 하나 둘 없어졌고 절간에는 지네가 수 없이 와글거리고 승방에는 빈대가 새까맣게 붙어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절은 황폐한 절간이 되었고 급기야 불을 질러 절간을 소실하였다.

그 해 여름에 장마가 져서 절터마져 산사태로 없어지고 그 선녀가 목욕하던 계곡도 바위와 돌과 흙이 떠내려갔다고 전한다.

〈끝〉